

은혜와 진리소식

2023년 5월 14일 [매주발행] / 발행인 : 조용목

은혜와진리교회 www.gntc.net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 (031)443-3731 ·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314번길 3 ☎ (031)225-3731

· 안산시 회령로 303 ☎ (031)486-3731



제1826호 1982년 8월 8일 창간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요 1:17)



“병약한 저를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강건하게 해주시고 변함없는 믿음과 사랑으로 주님의 일에 헌신하게 해주십니다.”

- 강현숙 -

남편의 건강을 빠르게 회복시켜 주시고 그 해 10월에 복직하여 일을 계속 하도록 섭리하여 주셨습니다. 남편은 그 후 지금까지 그 직장에 잘 다니고 있습니다.

시아머님은 병원으로 심방을 오신 목사님 앞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와 고백을 하시고, 우리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어디 아픈 데가 하나도 없다”는 마지막 말을 남기시고 편안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의사선생님이 어머니님 중증의 간암 진단을 받고도 7년을 더 사신 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어머니님과 저희 가족을 위해 장례예배를 드려주셔서 온 가족이 감사하였습니다.

남편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서 한동안 제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주일에 오전에 교회에 가서 예배에 참석하고 낮에 집에 와서 식구들 점심을 차려 준 후 봉사하려고 다시 교회에 가려고 하면 어린 딸은 오늘은 다시 교회에 안가면 안되느냐며 울고, 남편은 ‘아이가 중하나, 교회가 중하냐며’ 핍박하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님이 저를 위로해 주시고 믿음의 눈으로 십자가에서 대속의 보혈을 흘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극복하게 해주셨습니다. 기도함으로 주님의 의지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여 봉사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회사가 서울 양재동에서 시화로 이전하여 2006년 6월에 저희 집도 이곳 시화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이사를 앞두었을 때 섬기던 교회의 목사님이 말씀과 성령의 역사와 중만한 교회라며 은혜와진리교회를 강하게 추천해 주셨습니다. 저는 첫날부터 당회장 조 목사님의 설교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권사님이 되신 수구역장님이 당시에 제가 잘 적응하고 교회 중심의 생활을 하도록 옆에서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 후 아동구역장 직분을 받고 아이들을 돌보며 아동구역예배를 인도하던 중 근처 다른 구역의 아파트로 이사를 하고 감사하게도 성인구역장 직분을 받았습니다. 복음지를 들고 가가호호 방문하여 전도하던 중에 한 자매님을 만났는데 구역장님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후로 구역예배를 쉬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그 자매님은 지금도 저와 함께 열심히 구역예배를 드리며 이웃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들과 딸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며 잘 자라는 것을 보고 이웃돕기선교회에 들어가 봉사하였습니다. 직장에도 다니게 되었고, 늦게서 4번째 대학교에 들어가 직장 업무와 연관된 공부도 시작하였습니다.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지 않으면서 직장도 대학교 생활도 잘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베풀어 주셨습니다.

제가 직장에서 맡은 일은 2월에 일이 많고 3월이 되면 더 바쁘게 일해야 하는 업무였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잠이 부족한 상태로 출근하는 날이 잦았습니다. 2016년 2월 26일 토요일에 제가 더 바빠지기 전에 제 얼굴을 본다면 진정어머니와 막내동생 가족이 저희 집으로 올라왔습니다. 그 다음 날인 주일에 제가 어머니를 배웅하고 오후3시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집을 나섰다 길거리에서 갑자기 극심한 두통을 느끼며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고압게도 주변에 있던 어떤 여자 분이 집이 어디냐며 데려다주겠다고 하여 우리 교회로 데려다 달라고 하였습니다.

이웃돕기선교회 사무실에 올라가 안정을 취하려는데 계속 구토를 하였습니다. 대교구장 목사님이 달려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열린 병원에 가라고 하셨습니다. 가족과 함께 병원 응급실에 갔더니 약만 지어주고 내일 다시 오라고 하였습니다. 입맛이 없어 죽만 조금 먹고 밤에 깊은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평소보다 늦은 11시쯤 눈을 떠 딸이 갖다주는 물을 마시자 또 그

자리에서 구토를 하였습니다. 딸과 함께 전날에 다녀온 병원에 갔습니다.

저를 진찰한 의사 선생님이 혹시 뇌출혈이 있는지 모르니 CT촬영을 하자고 하였고 검사 결과 뇌출혈 소견이 보인다면 빨리 대학병원으로 가라고 하였습니다.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남편에게 연락하여 대학병원으로 가서 그다음 날 아침에 ‘뇌지주막하 출혈’에 따른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런 갑작스러운 상황에 남편과 아이들이 매우 힘들어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혹시 모를 부작용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을 때 저는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 기도하므로 담대 하였습니다.

수술대 위에 누웠을 때 저는 의사 선생님에게 웃으면서 “수술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이사야 41:10) 이 말씀을 거듭 암송할 때 성령님의 크신 위로가 임하고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수술이 잘 되었고 수술받은 후에도 몇 달 동안 약만 꾸준히 먹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무 후유증 없이 건강을 회복하였습니다. 전과 다름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건강하게 일상생활을 하면서 학교도 반학기만 휴학을 하고 남은 학기를 잘 마쳐 졸업하였습니다. 다시 직장생활도 하였습니다.

그런 후 지난 2019년 2월 22일 금요일 저녁, 퇴근을 하고 피곤하여 잠을 자다가 일어났는데 이번에는 왼쪽 가슴에 마치 번개를 맞고 가슴이 쪼개지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그날은 시간이 늦어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얌전히 잠을 잔 후 다음날 남편과 다니던 병원으로 가서 X-선과 CT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기흉’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대학병원에 가서 왼쪽 폐에 관 삽입과 함께 복강경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도 성령님이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용기를 북돋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저의 아픈 곳을 깨끗이 치료해 주시고 빠르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저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저를 사랑하셔서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 절로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지나는 시간, 경험한 모든 일마다 결과적으로 함께하시고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저의 병이 낫도록 기도해 주시고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더 깊고 풍성해지도록 은혜와 능력의 말씀을 주시는 당회장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주의 일에 힘쓰고 또한 병고를 겪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저의 자녀에게 은혜를 베풀고 친히 돌보아 주셨습니다. 아들은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회사에 들어가 일하다가 군대에 다녀온 후, 복직을 하고 야간 대학에 들어가 공부하고 있는데 내년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딸도 대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으며 공부하고 올해 전체 수석으로 졸업했는데, 지난 2월에 취업하여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와 저의 가족을 한없이 사랑하여 주시고 가정의 위기 때마다 잘 극복하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몸이 약했던 저를 치료하여 강건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항상 주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기며 봉사하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시편 73:28) 할렐루야!

“세계선교에 동참합시다!”

본 교회 세계선교연합회는 세계 여러 국가 많은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를 파송하여 수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며 미전도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적극 후원하고 있습니다. 본 연합회에서는 이 마지막 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준행하며 기도로, 물질로, 받은 은사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할 회원들을 모집합니다. 세계선교에 동참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 주요선교업무

- IMCR (International Ministries & Church Revival Conference: 세계선교와 교회부흥 회의) 세미나 개최 및 회보 발행
- 문서, 방송선교 지원
- 세계선교를 위한 기도회
- 세계선교연합회 소식지 발간
- 각 지역 선교센터 설립 운영 지원
- 당회장 목사님과 우리교회 해외 선교행사 동참
- 당회장 목사님의 외국어 설교집 발간
- 본교회 인터넷 사이버 공간에 홍보

은혜와진리 세계선교연합회 (GRACE AND TRUTH INTERNATIONAL MINISTRY)

구분	중국선교회	인도선교회	말레이시아선교회	일본선교회	인도네시아선교회	페루선교회	미얀마선교회	나이지리아, 태국선교회
담당성전	안양, 산본, 포일, 부곡	수원, 영통, 진위, 전원, 동탄, 안중, 평택, 용인, 남양, 율전, 전주효자	안산, 시화, 시흥, 인천, 부천, 부평, 영종도	과천, 판교, 강남, 구리, 광주	광명, 영등포, 원주, 천안	일산, 김포, 정유, 전주평화	수원, 양주, 서산, 당진	수원, 대구, 세종
연락처	T:031-448-1793 T:031-443-3731~2 (주내 112) C.P:010-4564-7539	C.P:010-5358-1233	T:031-487-1793 T:031-487-1397 C.P:010-5018-3686	T:031-448-1793 F:031-449-1793 C.P:010-8277-5200	T:02-894-3731 C.P:010-8277-2944	T:031-906-3731 C.P:010-5335-7050	C.P:010-5358-1233	C.P:010-5358-1233
성가단	그레이스 앤 트루스 미션파이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을 따라 주님의 귀한 일꾼이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2023년 교회학교 교사 세미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열려



2023년도 본교회 교회학교 교사 세미나가 지난 4월 27일(목) 저녁 안양성전 대성전에서 각 성전 교회학교 교사와 부서 담당 교역자들이 참석하여 말씀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 속에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서 당회장 조 목사님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본문으로 한 특강을 통해 교회학교 교사로서 봉사하는 일

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며 교사들의 사명감과 신령한 자긍심을 한껏 고취시켜 주시고, 큰 즐거움과 보람을 느끼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헌신을 하도록 축복해 주셨다. 이날 세미나는 교회학교 행사 운영국장 김요한 목사님의 사회 말씀을 본문으로 한 특강을 통해 장로의 기도, 신임 정교사 임명과

과 근속상 시상식이 거행되어 많은 신임 교사들이 정교사로 임명되었고 각각 40년, 35년, 30년, 25년, 20년, 15년, 10년째 근속한 347명의 교사가 영예로운 근속상을 수상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조용목 목사님은 수상자 대표로 가르치고 돌보는 일은 하늘에 상급을 쌓는 참으로 고귀한 일이라고 말씀하며 교사들을 격려해 주셨다. 특강 전에 신임 정교사 임명식

과 근속상 시상식이 거행되어 많은 신임 교사들이 정교사로 임명되었고 각각 40년, 35년, 30년, 25년, 20년, 15년, 10년째 근속한 347명의 교사가 영예로운 근속상을 수상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조용목 목사님은 수상자 대표로 가르치고 돌보는 일은 하늘에 상급을 쌓는 참으로 고귀한 일이라고 말씀하며 교사들을 격려해 주셨다. 특강 전에 신임 정교사 임명식



은혜와 진리교회

인양 :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T. 031-443-3731 ~ 2, 446-9184
 수원 : 수원시팔달구 장다리로 314번길3 T. 031-225-3731, 234-3732
 안산 : 안산시 회령로 303 (고잔동) T. 031-486-3731~2
 과천 : 과천시 별양상가2로 41 (별양동) T. 02-502-3731
 시흥 : 시흥시 신천로 44번인길 20-1 (신천동) T. 031-318-3731~2
 광명 : 광명시 하안로 254(하안동) T. 02-894-3731
 부평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북로 237(청천동) T. 032-507-3731~2
 부곡 : 의왕시 까치골1길 25 (삼동) T. 031-462-3731
 판교 :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335 T. 031-716-3743, 716-7832
 영등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4길 5 T. 02-2632-3731
 산본 : 군포시 산본로323번길 10-18, 6층 T. 031-395-8227
 인천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12번길 9 T. 032-469-3742
 부천 :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3번길 6 (송내동) T. 032-652-3731~2

인산 :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대로 866(중산동) T. 031-906-3731
 시화 : 시흥시 서촌상가3길 17 (정왕동) T. 031-497-3732
 영통 :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418 (영통동) T. 031-205-3732
 구리 : 구리시 동구릉로 16번길6 (인창동) T. 031-567-3731
 포일 : 의왕시 내손로 70-9 (내손동) T. 031-422-9200
 전원 : 화성시 봉담읍 왕림2길 76 (세곡리) T. 031-298-3739
 전원(수양관, 본관) T. 031-227-5992-3, 227-3739
 김포 : 김포시 청송로 4 (정기동) T. 031-985-3731~2
 평택 : 평택시 정암로 126-19 (이충동) T. 031-662-3731
 인중 : 평택시 인중읍 송담1로 144 T. 031-684-3731
 천안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유량로 144 T. 041-555-3731
 전주(평화)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12길 8-2 T. 063-225-3731
 양주 : 양주시 평화로1416번길 34-26 (덕계동) T. 031-863-3731
 원주 : 강원도 원주시 편두면 오성마을길 30 T. 033-764-3735
 강남 :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명로 220 (수서동) T. 02-459-3731
 장유 : 경남 김해시 덕정로12번길 39-11 (관동동) T. 055-312-3731
 용인 :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37 (역북동) T. 031-337-0688
 영종도 : 인천광역시 중구 햇내로48 (운서동) T. 032-751-3731

대전 :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충남로41번길30 T. 042-471-3736
 광주 : 경기도 광주시오포읍 미루들길 168 T. 031-763-3720
 남양 : 화성시 시창로102번길 56 (남양리) T. 031-355-3729
 대구 :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로 278 (내당동) T. 053-522-3731
 서산 : 충남 서산시 무석3로 11 (석림동) T. 041-667-3731
 울진 : 수원시 장안구 하들로 55 (천천동) T. 031-271-3731
 동탄 : 화성시 동탄공원로1길 26-71 T. 031-8015-3731
 당진 : 충남 당진시 대호만로 123 (재운동) T. 041-353-3731
 세종 :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420 (보람동) T. 044-862-3732
 전주(호재)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신촌2길 32-5 T. 063-239-1004
 인제 : 강원도 인제군 삼남면 내린천로 2572 T. 033-463-1312
 경주 : 경북 경주시 용담로 46-5 (황성동) T. 054-772-7867
 아산 : 충남 아산시 염치읍 병천동길39번길 21-18 T. 041-534-3731~2
 충주 : 충북 충주시 거룡1길 36 (송산동) T. 043-848-3731
 진위(제2수양관) : 평택시 진위면 동부대로 30 T. 031-662-3731
 산서 : 전북 정수군 산서면 성계로 2 (쌍계리) T. 063-351-7518
 전주 : 경남 진주시 금산면 중천로 8-7 T. 055-752-6675
 은양 : 충남 아산시 청문로 180 T. 041-533-3731



은혜와 진리교회 조용목 목사

구역예배

·성경: 누가복음 14장 25절~35절 강해 설교
·찬송: 찬송가 519장(새찬송 461장)

“누가복음 14장 25절~35절 강해 설교”

것입니다. 직설적으로 말하면 죽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아를 십자가에 못박는 일은 한번 만으로 끝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날까지 지속되어야 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과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중심이 아닌 자기중심으로 행하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리하여 빗나간 자아를 십자가에 못박는 회개를 하며 살아갑니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은 모든 일들을 자기중심·자기본위로 하여도 마음에 고통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곧장 가나안으로 진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기둥을 보내어 그들 앞에서 인도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고 수백만의 사람들이 광야 길로 행진하는 것은 위험천만입니다. 길이 험한 것만이 아니라 먹고 마실 것을 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엄청난 위기들이 있었습니 다. 어쩌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셨을까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훈련을 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유 불문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신뢰하며 따르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 서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훈련을 잘 받으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한 후에도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행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거나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일을 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광야학교에서 낙제하였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정상 행로를 감안하여 음식을 준비하여 떠났는데 그만 광야 길로 들어서게 되고 보니 양식이 바닥나고 말았습니다. 이 때야말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 양식을 내려 주셨습니다. 만나였습니다. 그냥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 모든 영양분이 골고루 들어있는 완전식품이었습니다. ‘이것이 웬 떡이냐’라고 그들은 감탄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래지 않아서 그들은 고기가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민수기 11장에 기록되기를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역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민 11:4~6)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이런 원망을 촉발시킨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누구인가를 출애굽기 12장에 밝혀 놓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에서 발행하여 숙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육십만 가량이요 중대한 잡족과 양과 소와 심히 많은 생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출 12:37,38)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은 20세 이상의 장정만 60만이었습니다. 야곱이 70여 명의 가족을 이끌고 애굽에 들어왔으나 애굽을 떠날 때는 야곱의 후손이 최소한 200만이 넘게 되었습니다. ‘중대한 잡족’이 그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이들을 세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① 이스라엘 자손과 결혼하여 혈연관계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②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가지게 되

고 이스라엘 자손과 섞여 살던 이방인 무리가 있습니다. ③ 애굽인들과 바로의 폭정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옛 셈족의 잔류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였던 ‘중대한 잡족’들은 비록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공동체에 가입은 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참된 신앙을 갖지 못하였습니다. 신앙이 없으니 조금만 어려운 상황에 처해도 불평불만을 터뜨릴 것은 뻔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같은 이방인들의 행위를 따랐다는 것이 심히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서 마땅히 이웃을 교화하고 신앙적으로도 모범을 보여야 했습니다. 분위기에 휩쓸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분위기를 만들고 바로잡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쁜 영향을 쉽게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향을 받지 않고 그 원인을 치유하고 제거하는데 힘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불평불만 하도록 유도하는 사람은 자신과 이웃을 모두 불행의 늪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긍정적인 분위기를 창출하고 감사하도록 이끄는 사람은 자신과 이웃을 다 행복의 동산으로 인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섞여 사는 잡족이 있었듯이 교회 중에도 잡족이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자, 세속화시키는 자, 불신앙적인 불평불만을 조장하는 사람이 잡족입니다. 본질이 변하지 않는 잡족은 제거해야 하지만 잡족의 영향을 받아 몰든 사람은 바로잡아 주면 돌이킵니다. 시편 1편 1절,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와 율법을 즐겨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였습니다.

잡족들이 애굽을 출발하게 된 동기가 전적으로 육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영적인 것이 우선되었습니다. 모세는 애굽왕 바로에게 요구하기를 “우리를 내어보내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생각하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가는 길에 예기치 못한 곤란이 닥칠지라도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치하신 것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노예생활 하던 우리를 자유롭게 하여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려고 기사와 이적을 행하여 바로를 굴복시키고 이끌어 내신 하나님이시 다. 그러므로 당장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은 장래에 더 큰 유익을 주시려고 예비하지 않고는 우리를 곤경에 처하도록 하지 아니하십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 중심·하나님 우선·하나님 제일의 신앙을 가지면 가능합니다. 자기중심·자기본위의 생각과 판단과 언행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악과 마귀와 지옥의 권세에서 건져 내신 구세주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영화로운 천국을 예비하시고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따라 가는 길에 어떠한 곤란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낙심치 않고 굳건한 자세를 견지하며 전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며 사랑하는 데 있어서 비교대상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자기 십자가를 내려놓지 않고 계속 지고 가야 합니다.

28절에서 3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않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일만으로서 저 이민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겠어 해이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저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하나님은 사람에게 이성과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성(이성)은 사물의 이치를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마음의 작용입니다. 참과 거짓, 옳고 그름을 식별하고 판단하는 능력입니다. 믿음은 이성이 미치지 못하는 분야에도 작용합니다. 믿음과 이성은 상충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이성(이성)에 위배되고, 이성은 믿음에 장애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과 이성은 상호 작용하여 건전하게 발전 시킵니다. 중대한 일을 경영하거나 치르려고 하는 사람은 계획과 실행에 있어서 이성으로 심사 숙고해야 합니다. 무턱대고 “주여, 믿습니다.” 하고 시도하는 것은 이성이나 믿음에 있어서 정상적 태도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망대 건축과 전쟁 준비 비유는 이러한 사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관련된 자료와 정보를 최대한 수집하여 이를 종합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러한 후 최종 결론에 이르면 믿음으로 행하여야 합니다. 성경적인 믿음은 이성적인 추리와 판단을 온전하게 하고 추진력을 부가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위인들이 상황은 무시하고 믿음만을 가지고 행한 것 같아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충분한 이유와 근거에 의한 믿음으로 행하였습니 다.

노아가 방주를 건조한 것은 무턱대고 한 일이 아닙니다. 근거가 있습니다. 그 근거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노아는 이성과 믿음을 겸비한 결단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갓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대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삼백 규빗, 광이 오십 규빗, 고가 삼십 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 중 하 삼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들어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창 6:13~20). 성경에 기록되기를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 하였더라**.”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 가나안으로 이주할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무턱대고 떠났다.”라고 오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충분한 이유와 근거가 있었습니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라고 하신 명령이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출발하고 진행한 근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라고 기록되었습니다. 무턱대고 나서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아직 임금이 없고 사사들이 활동할 때였습니다. 그들은 위기상황에서 이를 해결하도록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을 받아 활동했습니다. 기드온도 사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들이 다 모여 요단강을 건너 이스르엘 골짜기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을 약탈하고 있었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밀을 타작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기드온을 향해 “**큰 용사여 여호와와 함께 서서 나와 함께 계시오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너는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전 지역을 약탈하고 있는 미디안을 물리칠 수 있다고 하는 그의 말이 기드온의 이성으로는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그의 말을 확증할 수 있는 표징을 요구했습니다. 기드온은 자기와 이야기하고 있는 상대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기드온에게 나타난 자는 기이한 일을 행하여 자기가 하나님의 사자임을 기드온이 확인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주께서 이미 말씀하시길 같이 제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하시니, 보십시오. 제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겠습니다.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사면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 제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내가 알겠습니다.**” 과연 그대로 되었습니다. 이른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취하여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였습니다.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주님, 저에게 진노하지 마시옵소서. 제가 이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양털로 시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시옵소서.**” 하였습니다. 그 날 밤 하나님께서 그대로 하셨습니다. 곧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내려 있었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기 위해 두 번이나 표징을 요구한 것은 당돌하고 너무나 까다롭게 군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아무 말씀 없이 다 들어주셨습니다. 기드온이 이렇게 재확인한 것은 사실 성격이 까다로워서 이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경솔히 속단하여 하나님의 뜻이라 주장하고 일을 저질렀다가 뒷감당 못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는 이성과 믿음을 겸비한 행위였습니다.

기드온이 적들과 싸우기 위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군사를 모집하려고 나팔을 부니 이스라엘 각 지역과 지파 가운데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수가 모두 32,000명이었습니다. 기드온은 군사들을 이끌고 하트셈 가에 진을 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지시했습니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치기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여든 길르앗 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라**.” 사실 모여든 사람들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 위태로우니 군사가 되어 싸우려고 자원해서 나오기는 했으나 적군과의 싸움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보다 문제를 더 주시하므로 인해 두려움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일꾼으로는 자격미달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외치니 삼만 이천 명 가운데 이만 이천 명이 돌아가버리고 만 명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기를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

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무릇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가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는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 물을 활아 먹은 삼백 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안 사람을 네 손에 물리키니 남은 백성은 각각 그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을 각각 그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삼백 명은 머물게 하였습니다. 기드온은 군사들에게 작전 지시를 내렸습니다. 삼백 명을 세 대로 나누고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고 항아리 안에 햇빛을 감추게 하였습니다. 300명이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햇빛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여호와와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외치며 적을 에워싸게 하였습니다. 군사 숫자가 많은 것을 믿고 방심한 적들이 갑자기 요란한 소리와 함께 일시에 비추는 빛으로 인하여 겁을 먹고 당황하여 자기들끼리 서로 칼날로 치며 허겁지겁 달아났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도들의 믿음과 행위에 비이성적이고 불합리한 것이 많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실한 근거에 의하여 믿고 행하는 것은 매우 차원 높은 이성적 행위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한동안은 메시아에 대하여 그릇된 이해와 기대를 가지고 따랐습니다. 그리하여 셋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체포되는 것을 보고 다 도망하였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뵈고는 메시아에 대하여 성경대로 알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지식과 믿음과 확실한 많은 증거에 근거하여 그들은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에 대하여 충분히 알고 각오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33절에서 3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었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필요하다면 인간관계에서나 세상 것의 소유에 대한 단념과 포기과 상실을 기꺼이 수용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는 결단은 마치 소금이 지닌 고유한 맛과 같습니다. 이런 맛을 잃은 신자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는 쓸모없어서 버림받은 소금과 같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며 따르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장차 당하게 될 일에 비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며 따르기 때문에 세상에서 겪게 되는 상실과 고난은 아주 사소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장차 누릴 영광은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비교하거나 형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므로 세상에서 얻게 되는 신령한 복이 엄청납니다. 이는 세상이 줄 수 없고 빼앗아 갈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한 편으로는 단념하고 포기해야 할 것과 핍박과 냉대와 희생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 된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는 것을 조금도 이상히 여기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